芳澤公使抗議 英口事件으로 (北京十三日歿) 芳津公使三十二日午後五時外交部署訪問討 中岡口事件の對計の設理抗議署 提出計分行日刊

城梯 同興和 爽 河井川生 田 田 北上軍武各

足可畏

人의所見의

外交團의 巴谷 (北京十二日雲) 外交團의十(北京十二日雲) 外交團の計中國側の第三次抗議の関すの所での第一次的時間の首席公使養通行の協議が出版の對から外交幽の三外交幽の三大的時間の對から外交幽の三外交幽の三大統議が開放と調査を受員の向からは議者の対する。

한에러의府고抗十

米國砲艦과

廣東市를午後三時에占領三師軍斗協力하中雲南軍 一番地十三日愛 十二日午後 のでいる 第一師と 東京軍第一師と 東京軍第一師と

無湖上漸次惡化

世豆山佐上 次技 全郡的 ○ 三兩 日間 成南豊山郡の分と市民主催 三來 十九、二十兩日間の全郡路上競 技大會量開催 立叶上町一般市民 を熟狂的歓迎 ○ 三同情金 ○ 潔室

脚 数大會 市 具 運 勘

一等未定 一等農牛一

軍 方面의

障の無計斗早晩罷

電道南里遠南労働紀一十五日에の一大二十五日の

平康 5 懸賞

名 住 以 五 十 明 所 內 十 四 配 氏 要 行 字

中陽中

0. 道局 交絡郡

本山の分丘成正化 張氏飛行觀覧 場当氏と木浦豆や引黄登島以上 が不願すの安着が火上間常日の日報 が不願すの空豫定地で、公園山海 場が 男子の工事派岸の着 機が 男子の工事派岸の着 ル人海臺の早の未曾有3 盛ル島 の デダロ目音(群山)

神殿の同情人士の氏子を中容派各二個松いの一

一、田崎 19期側の一斗式側減割 一、小作橋永久保障当件(承緒) 一、場場防壕の野社件(天経の 一、場場防壕の野社件(天経の 一、場場防壕の野社件(天経) 一、場場防壕の野社件(天経)

◆電話▲市内□

四三二

元式で

川元五〇

久当

♦

\Q

窮水

民创

安朴州氏司熱殿の民安朴州氏司熱殿の民

[金堤] 救濟會分配交員の情修而所が出張さい救済局を関時を持ちいる。 室城布袋代金島暫時を持ちいる 文스門コミの로一人の第民の中 大口救済が以上中市政府以中 計日私有金の石分分民子口公金の 以合い性質上参介台中口計場へ 写の等等がス

一二五二— 一二 止 八八三〇三四三一〇七比 高高高高。高高高高

のよ。00 M, 000

(100 〇 11回20 100 〇 11回20 100 日 10

***** ₹ 5 0 8 400 0 133

会学エリーニ日致) 駐土佛國大使『小豆-」氏と『小子只三一般 道問題の闘から佛土神殿間の事 道の對から此上誤軍の中口勝言

律中件計 被他 列田 開 器 過 案 资 人 空 交 原 仙 計 는

勞働界

에

서 독수의다리가 부금이 무슨이다고 보고 있는데 보면 사업을 다 되었다. 이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있는데 보고 洞이 영나 더라

에

이 지역 독 이로 이시장에소고기를벌기위하야 (東殿町)에 있는만리 대립과행(末殿町)에 있는만리 대립제键)라는 료리집에 갓다고 장기최현화(棋蓮花) 와 그 자 창기최현화(棋蓮花) 와 가지고상해로

八歳의少婦プ

한 등 민들은 박화서의 형포무도한을 라매한즉 박화서의 형포무도한 신은 웨도을주지못하고소작권이동하는것만 말하느냐되지 와가리 무도한 대단을함으로소 이라고말을 못한다는데 원촌리 (院村里)박화명(林羅英)에게이 시상리(待上里)한태몽(韓逐舉) 에게 全对社會 明明召马至司

里) 공핵중(孔宅中)에게이십원과 신학리(孝鶴里)윤상만(尹和萬) 에게 칠십원과 그외여러사람이 핵증과 윤상반의 돈만주고본도 어떠하지못하게됨으로한상만의 돈으는 사음안래신에게박고 공핵 등으로 아주앗지 돈도본도주지안 중으로 아주앗지 돈도본도주지안 하는 나라는 등이며 한돈의 소작권 등 그러하는 등이며 한돈의 소작권 등 사용 **计处司(内山**

을하야주엇습

으로 일반소작고등이 원청이참 턴하야 디주나차인이나 할것입 시 불에다 되슬려 죽이자고일대 소등상인바 장차엇더한 일이잇 有名む朴勝林

作地每斗落的

員

惡地主로

五月十五日附貴報第一千七百九五月十五日附貴報第一千七百九小作人の刘昌司舍晉」の라と題下記事中(中男)本人の刘野世記事と全然の無根む事實のフ(中男)取消お台書申請おけのは、中国の年本月十二日

面長會

郡의 が指示 きよユ (四)

지수이의 어떤말식을가 하다 다 그 지수이의 한소자인의 학생 반조자인의 다 하다 바이에는 다 하다 다 하다 다 다 하다 다 다 그 지수의 요구 내로 하는 것이 조 및 한 사이의 요구 내로 하는 것이 조 및 한 사이의 요구 내로 하는 것이 조 의 요구 하는 대로 생각하다 디 모본증

일付

宗公

。

国官

夏音

音音

音音

가족사명을 일시에 참살한자인 의자속사명을 일시에 참살한자인 되었는 바 바면되면서 역시몽농 이동속을 가지고 도라다님으로 하고 있는 다리하고 동리사람도 두려워함 이로 소관주재소와 면소에서는 배우우려중이라더라(대구) 의 로 고소를데 기하리라는데 그내 인 유을들이록 원기리순해가 다리 고 그룹리집주인의 아들에게 『오마 로 예』라는말을하였더니요하였든 로 해를하는 배명의 아들로 커그리 반말을 하느냐합으로 리순해는 는 배명이라는말의 BN이나쉬이던의 는 매명이라는말의 BN이나쉬이던의 문자부가아니냐하며쉬 가며 농사를지으次이 밀정된수 사람이 만형성다는데 그러나아 무능력이 업고(아무권리도가 부족한 무지리고 피도를을 즐리면서요 가수요를 지고 살마면던데 그러나아 무지고 참이오는바 디게(地稅)가 지 소작인이 다취노흔것을 그일 시아 소작인이 다취노흔것을 그일

動物関の

◇간도남녀상반대회에서 명예 (尹容俊) 군파김명(군(金永順)양 (자일조간의사람조)



(光熙門)방신당리(新堂里)된실 어서 오륙십명장당이모처 밀대 지수하다 현세기위에 마희문 이번 순사두명과 왕십리주재소 기출동하였스나 그때에는 대개 기출동하였스나 그때에는 대개 大路上大格鬪

兩便都合五十名

をおれる

全鮮

東京本店 京城支店 17時可常支店の豆直接倒注文計Aとよの限計のと小包料量不今般各方面의希望の依計の京城支店及附屬醫院會新設刊되父合う般各方面의希望の依計の京城支店及附屬醫院設置

大日本總發賣元

大阪支店